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간 시황 Report

2021. 07. 04. 제 49 호

페로타임즈
FERRO TIMES

(요약)

1. 종합 : 하반기 수급 균형 '변곡점'…철광석·철강 '하향', 고철 '高'
   - 철강·원료 전반 안정 혹은 하락…공급 개선, 수요 둔화
     : 철강재 비수기 효과 뚜렷, 韓 급락 국면 '거품 제거'
   - 철광석 하락 전망…中 생산 억제 강화 비수기 영향
   - 고철 생철-경량 '양극화' 고로 수요 확대 강세 견인
   *. WSD 하반기 전망
     : 철강·원료 4분기 20% 이상 급락, 3분기 공급부족 '高價' 안정

2. 철광석
   - 6월 220달러 내외 고공행진…7월 수급 개선 약세 전망
   - 中 정부 하반기 생산 억제 강화 예상
   - 제철소 가동률 크게 하락 생산 감소

3. 철스크랩
   - 고로 구매 경쟁…중량 70만원대 : 한중일 고철 확대 초강세 '지지대'
   - 일본산 HS 중국향 오퍼 630달러 : 고급-저급 양극화 속 高수준 관측
   - 韓國 전기로 하계 보수, 단기 조정 요인

4. 철강재
   - 비수기 효과 뚜렷, 韓 급락 국면 '거품 제거'
   - 가수요 실종, 실수요는 '高價' 저항감 확대
   - 중국 현지 오퍼 열연 FOB 880달러, 러시아 850달러
   - 한국 유통 가격 (열연 약보합, 철근 국산·중국산 본격 하락)
     . 열연 포스코대응재 128만원, 중국산 126만원
     . 철근 국산 115만원, 중국산 115만원

*. 제공 : ㈜페로타임즈

시황분석리포트

2021년 7월 1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FERRO INDEX] 철강재 및 원료 가격 종합

단위 : 달러/톤, CFR

구분	세부 항목		6-1주	6-4주	6-5주	변동폭 일주일	변동폭 1개월
철광석 원료탄	글로벌	Fe 62%	209	212	**218**	5	9
		강점결탄	283	297	**307**	10	24
철스크랩	미국산	터키 HMS 1&2	501	499	**498**	-1	-3
		죠 HMS 1&2	508	515	**518**	3	10
		대만 컨테이너	440	452	**457**	5	17
	일본산	일본 H2 (백엔 FOB)	475	510	**500**	-10	25
		*H2 한국도착(천원)	522	560	**555**	-5	33
	중국	장수성 내수 평균 (위안)	3,590	3,770	**3,770**	0	180
		HRS101(중량) 수입 (달러)	530	550	**570**	20	40
중국 철강재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1,050	1,000	-	-	-
		중국 오퍼(FOB)	929	902	**880**	-22	-49
		중국 내수 가격(위안)	5,840	5,600	**5,590**	-10	-250
	철근	사강강철 한국향(CFR)	-	925	-	-	-
		중국 오퍼(FOB)	765	753	**750**	-3	-15
		중국 내수 가격(위안)	5,110	4,900	**4,900**	0	-210
	냉연	냉연코일(FOB)	1,120	-	-	-	-
	아연도금	아연도금코일(FOB)	1,082	1,050	-	-	-
반제품	빌릿	흑해 수출(FOB)	640	640	**628**	-12	-12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990	990	**990**	0	0
한국 철강재	한국 유통 가격	열연(포스코산)	130	128	**127**	-1	-3
		(중국산)	130	125	**125**	0	-5
		철근(국산)	115	122	**115**	-7	0
		(중국산)	137	125	**115**	-10	-22
		형강(국산)	115	127	**127**	0	12
		(포스코베트남)	117	123	**123**	0	6
		앵글 찬넬(국산)	105	117	**117**	0	12
		앵글(수입산)	93	94	**94**	0	1
		잔넬(수입산)	95	96	**96**	0	1

·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6/28~7/2일 평균
· 한국 품목별 유통가격 : 페로타임즈 자체조사, 각 품목 베이스 기준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한국 도착 가격은 운임/환율 등에 영향*
중국 : 7월 2일 기준 *HRS101 수입은 CFR 기준
· 중국 오퍼 : 무역업계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중국 내수 가격 : 상해 7월 2일 기준
·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 반제품 : 빌릿(플래츠 기준), 슬래브(AMM 기준)

※ 최종 업데이트 7월 2일

**. 제공 : ㈜페로타임즈*

하반기 수급균형 '변곡점…철광석 철강 '하향' 고철 '高'

철광석 하락 전망…中 생산억제 강화 비수기 영향
고철 생철-경량 '양극화' 고로 수요확대 강세 견인
철강재 비수기 효과 뚜렷 韓 급락국면 '거품 제거'
철강·원료 전반 안정 혹은 하락…공급개선 수요둔화

철광석 가격은 220달러 전후의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1일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당산시를 비롯한 주요 철강 기지의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6월 말로 생산 제한이 풀렸고, 철광석 가격은 높게 유지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 글로벌 철광석 공급은 확연히 개선되는 반면 수요는 둔화 혹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측면에서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둔화 혹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생산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생산규제에 실패한 정부로서는 하반기 규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3분기 들어서면서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제철소들의 증산 기조도 확연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공급은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발레(Vale)는 올해 2800만 톤 규모의 광산 가동을 재개하고 24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장합니다. 하반기에 4800만 톤의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호주는 500만 톤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역시 하반기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철강 시장은 이미 6월 비수기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유통 시장에서 약세기조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근은 국산 및 수입산 가격이 모두 115만 원으로 10만 원 내외로 급락했습니다. 수입산 가격은 1개월 전 135만 원을 웃돌던 것이 매주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국산과 동가(同價)로 맞춰졌습니다. 열연 후판 등 판재류 수요 역시 급격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선행지표인 6월 철강구매자지수(PMI)가 45.1로 5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규 주문지수는 34.8로 4.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는 시장 거래는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7월 시장은 이같은 영향으로 약세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반기는 특히 수요가들의 고가(高價) 철강재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상반기 폭등을 견인한 가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잇따릅니다. 철강 생산이 감소 혹은 안정세로 나타나면 수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감소는 이를 상쇄하는 한편 시장의 가격저항과 가수요 실종 등의 요인은 가격을 하향 추세로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수급은 균형을 이루고, 시장 수요 및 가격은 상승동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철강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도 함께 감소하면서 가격은 하락 혹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공 : ㈜페로타임즈

[WSD 하반기 전망]

철강·원료 4분기 20% 이상 급락…3분기 공급부족 '高價' 안정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0

페로타임즈 6월29일자

철강재 가격은 하반기에 2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광석은 30% 이상 급락이 예상되는 데 비해 철스크랩(고철)은 15%가량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폭등의 원인이었던 공급부족 현상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분기별로 3분기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인 뒤 4분기에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글로벌 철강 분석 기관인 WSD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시나리오별로 열연 가격은 하반기 최저 400달러대까지 폭락하는 반면 최고 1000달러 이상이 유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열연 가격은 FOB 톤당 715달러로 예측했다. 6월 현재 912달러에서 21.6%(197달러) 하락한 수치다. 글로벌 시장은 1050달러에서 750달러로 28,.6%(300달러)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WSD 2021년 철강 및 원료 가격 전망 (2020. 6. 24)

단위 : 달러/톤

품목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2023년~
			공급부족					
열연강판	World export market (FOB)	690	1,070	**1,050**	975	750	650	513
	China export (FOB)	680	1,010	**912**	920	715	630	490
철광석	Chinese iron ore (Hebei province)	147	221	**222**	200	150	130	110
원료탄	Coking coal (Shanxi province)	162	245	**263**	250	210	165	108
철스크랩	80/20 HMS (to Turkey)	444	506	**500**	500	425	370	370
철근	China ex-work	532	700	**660**	650	620	560	450
	Turkey exprot	610	765	**730**	760	585	530	470
반제품	빌릿 (FOB Black Sea)	545	690	**650**	750	540	520	432
	슬래브 (FOB Black Sea)	600	920	**910**	900	670	575	435

- 이하 생략 -

. 제공 : ㈜페로타임즈

◆ 철광석

철광석 6월 220달러 내외 고공행진
中 정부 하반기 생산억제 강화 예상
제철소 가동률 크게 하락 생산 감소
철광석 원료탄 약세 전망 수급 개선

앞으로 철광석 수요는 둔화 혹은 감소세로 전개될 전망이다. 공급은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철광석 가격을 하향 추세로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단연 철광석 시장을 좌우할 '키(key) 메이커'다. 중국 정부는 상반기 생산억제 정책에서 사실상 실패했다. 조강생산량은 4억73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하반기는 올해 연간 목표인 2020년 10억6500만 톤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브라질과 호주의 생산 및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광석 원료탄 쇳물구매원가 : 7월 2일 현재

단위 달러/톤	중국 수입		
	철광석(Fe 62%)	원료탄(강점결탄)	쇳물구매원가
2021-06-30	217.0	307.5	596.0
2021-07-01	219.4	306.6	599.1
2021-07-02	**216.6**	**307.6**	**595.3**
전날 대비	**-1.3%**	**-0.3%**	**0.5%**
	-2.8	-0.9	3.1
6월 말 대비	**-0.2%**	**0.8%**	**0.8%**
	-0.4	2.4	4.8
5월 말 대비	**9.6%**	**7.7%**	**9.7%**
	19.1	21.9	52.9
4월 말 대비	15.7%	24.7%	17.8%
	29.4	56.1	85.9
3월 말 대비	31.8%	31.7%	29.7%
	52.3	67.9	129.5
2월 말 대비	22.8%	29.1%	23.2%
	40.3	63.5	106.5
1월말 대비	37.2%	7.3%	23.3%
	58.8	16.0	100.0
2020년	36.2%	26.1%	24.7%
12월말 대비	57.6	52.2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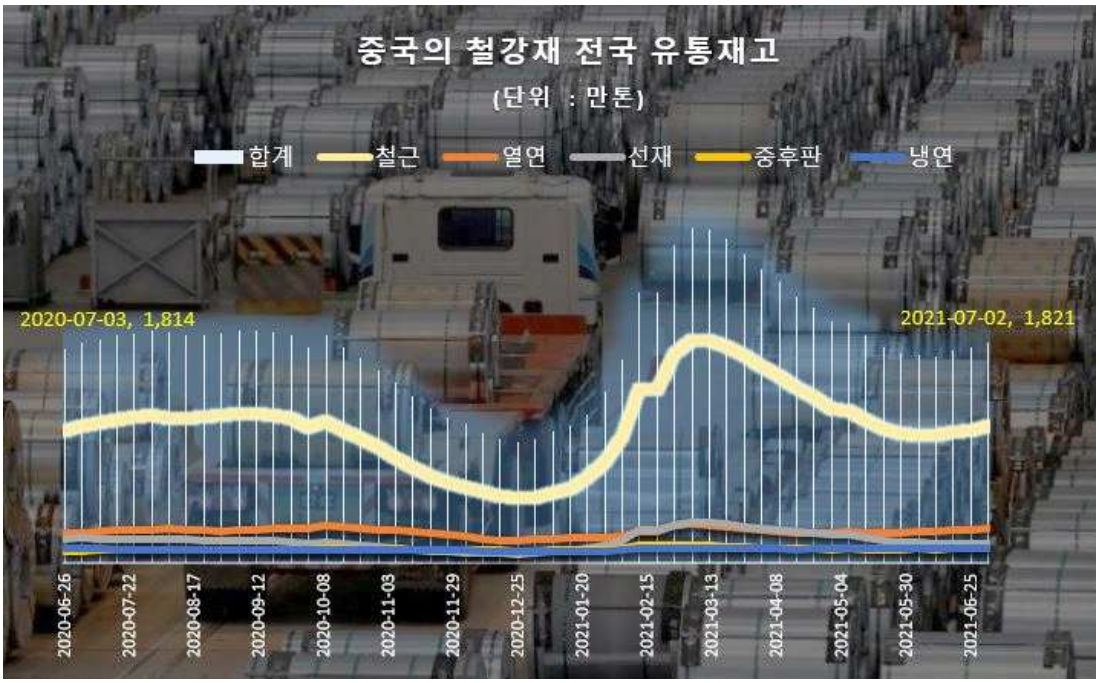
▷ 중국 45개 항구의 철광석 재고

7월2일 기준 수입재고 1억2200만 톤

철광석 가격 6/1~6/30 평균 213달러

▷ 중국 5대 철강재 유통재고 : 2주 연속 감소

전년 동기 재고 수준 상회…여름철 비수기 증가세 예상



*. 제공 : ㈜페로타임즈

◆ 철스크랩(고철)

고로 구매경쟁...중량 70만 원대
일본산 HS 중국향 오퍼 630달러
한중일 고철 확대 초강세 '지지대'
韓 전기로 하계보수 단기조정 요인
고급-저급 양극화 속 高수준 관측

국내 철스크랩(고철) 가격은 양대 고로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구매 경쟁으로 6월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타이트한 수급 긴장감으로 인해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확산됐다. 반대급부로 양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여름철 설비보수를 비교적 길게 가져갈 예정이다. 고철 가격이 단기 강세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등락 요인이 대립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고로사들이 고철 사용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강세 전망에 힘을 얻는다. 실제 일본산 HS(중량) 등급의 오퍼 가격은 CFR 톤당 최고 630달러(한화 71~72만 원)까지 나왔다. H2(경량) 수급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가격도 혼선이 심하다. 지역 및 등급에 따라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아시아 지역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미국
- 대형모선 : HMS No.1&2(8:2) 아시아향 오퍼 CFR 520달러
- 컨테이너 : HMS No.1&2(8:2) 대만향 오퍼 460~470달러
- 터키시장 : HMS No.1&2(8:2) CFR 498달러 1달러 하락
  터키 철근 수출 가격 FOB 720달러 10달러 하락

2. 일본
- 오퍼 기준 : H2(경량) FOB 톤당 5만 엔 내외 '약세'
  HS(중량) 중국향 CFR 630달러(71~72만 원)
  HS(중량) 베트남향 CFR 620달러, 대만향 609달러
  슈레디드 한국향 CFR 6만4000엔(65만 원)
  슈레디드 베트남향 CFR 560달러

3. 한국
-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생철 중량 구매경쟁 : 생철 중량 60~62만 원대
-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철근 메이커 : 중량 55~56만 원 이상 경량 52만 원 이상
※ 여름철 보수 약세요인으로 단기조정 가능성
  현대제철 : (포항)제강 7/5~7.22일 (당진)제강 9/24~10/9 (인천)제강 90톤/60톤 11월 예정
  동국제강 : (인천) 120톤 제강 7/26~8/8

◆ 철강재

철강재 비수기 효과 뚜렷 韓 급락국면 '거품 제거'
가수요 실종, 실수요 고가(高價) 철강재 저항감↑
중국 열연 오퍼 FOB 880달러 러시아 850달러

철강재는 중국과 한국, 동남아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7월에는 이같은 하락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비수기 철강 수요 위축과 가수요 실종, 실수요들의 고가(高價) 철강재에 대한 저항감은 유통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철강사들의 생산 둔화 혹은 감소는 약세요인이지만 시장의 수요 위축은 이를 상쇄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철근 국산 및 수입산 가격이 모두 115만 원으로 10만 원 내외로 급락했다. 수입산 가격은 1개월 전 135만 원을 웃돌던 것이 매주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국산과 동가(同價)로 맞춰졌다. 열연 후판 등 판재류 시장도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태로, 약세로 전개될 전망이다.

▷ 중국 5대 철강재 내수 가격

중국 상해 지역 5대 철강재 내수 가격

(단위 : 위안/톤)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1-05-31	5,070	5,830	6,180	6,650	5,670	5,710
2021-06-25	4,900	5,600	6,000	6,580	5,480	5,340
2021-06-30	4,900	5,640	6,000	6,550	5,480	5,310
2021-07-02	**4,900**	**5,590**	**5,970**	**6,510**	**5,370**	**5,340**
(달러)	**755**	**861**	**920**	**1,003**	**827**	**823**
6/30 대비	-	▼50	▼30	▼40	▼110	▲30
6/25 대비	-	▼10	▼30	▼70	▼110	-
5/31 대비	▼170	▼240	▼210	▼140	▼300	▼370

*. 제공 : ㈜페로타임즈

▷ 유통 거래 가격 현황

	열연		철근		H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앵글 잔넬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5-1주	115	115	89	92	101	99	99	94	80	82
5-2주	120	120	95	100	102	105	105	95	85	87
5-3주	125	125	98	115	111	115	113	101	90	92
5-4주	130	130	100	135	111	115	113	101	90	92
6-1주	130	125	115	137	115	117	117	105	93	95
6-2주	130	127	119	134	125	123	123	115	95	97
6-3주	130	126	122	131	127	123	123	117	95	97
6-4주	130	126	122	125	127	123	123	117	94	96
6-5주	**128**	**126**	**115**	**115**	**127**	**123**	**123**	**117**	**94**	**96**
전주 대비	-2	0	-7	-10	0	0	0	0	0	0
5월말 대비	-2	-4	15	-20	16	8	10	16	4	4

▷ 중국 현지 오퍼 열연 FOB 880달러/철근 FOB 750달러

*. 제공 : ㈜페로타임즈

철강 수요증가 '착시' 주문만 밀려…유통價 '거품 제거' 경계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1

페로타임즈 7월1일자

올해 철강 가격 폭등은 급격한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달리 실제 수요는 여전히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에 수요가 먼저 살아나면서 주문이 밀렸을 뿐이다.

실제 상반기 내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인 데다 수출은 되려 감소했다. 하반기 내수는 둔화되고 수출은 역시 각국 보호무역주의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 수요와 공급은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유통 가격에는 거품이 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 출하량은 열간압연강재 기준으로 1~5월 2002만 톤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0%(114만 톤)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작년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같은 기간(2032만 톤)과 비교하면 되려 1.5% 감소했고, 2018년(2025만 톤)과 비교해도 1.1% 줄었다. 철강 수요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계속될 전망이지만, 하반기 수요 증가폭은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철강 메이커들의 주문은 최소 1개월 밀려 있는 상태로, 3분기 말까지 수주는 완료된 상태다. 시장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수급 상황은 여름철을 기점으로 3분기 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철강 유통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철강 유통 가격은 메이커들의 인상에 앞서 빠르고,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메이커 공급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은 3분기 균형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현재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유통 가격은 하반기 거품이 빠질 것이란 지적을 내놓는다.

철강 메이커들의 공급 가격은 철광석 철스크랩(고철) 등 원가부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면서 유통 가격과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철강 수요는 상반기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수출 동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강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내수는 15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18만 톤) 증가했다. 이 역시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2019년 대비로는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18년고 비교하면 1.2% 감소했다.

수출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보다 좋지 않다. 같은 기간 수출은 5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2019년 대비로는 6.6% 감소했고, 2018년 대비로는 0.8%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통 가격의 폭등은 재고 보충 과정에서 수요가 공급에 앞서 빠르게 정상화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철강사, 유통, 실수요에 이르기까지 재고는 바닥인 상태에서 사실상 가수요가 가격 폭등을 견인했지만, 이같은 상승요인들은 하반기에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공 : 페로타임즈